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S리그 참가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

권진욱¹ · 김중호²

¹울산대학교 석사·²울산대학교 조교수

A Subcultural Analysis of a Masters Cycle Tour S-League Participating Club

Kwon, Jinuk¹ · Kim, Jongho²

^{1,2}University of Ulsan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ultural descriptive analysis focusing on the unique subculture within MCT S League clubs to gain insight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club activities. A total of seven club memb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internal phenomenon of the club was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observation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The study found that some of the clubs' decision-making such as recruiting, and member selection, were conducted behind closed doors. Additionally, male dominating environment resulted in a strict training culture that emphasized speedy and safe practices. Within the club, expansion, and conflict of social relationships were observed, and members demonstrated leadership that prioritized team victory. The sub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lub provided opportunities for self-actualization as in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promoting individual growth and the pursuit of fair competition.

Key words : Masters Cycle Tour, subculture, S-league, distinction theory,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주요어 : 마스터즈사이클투어, 하위문화, S 리그, 구별짓기, 메슬로우 욕구이론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ongho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gu, Ulsan, Korea)

E-mail: Jonghokim@ulsan.ac.kr

Received: July, 28, 2023 Revised: September, 7, 2023 Accepted: September, 20, 2023

I. 서론

근래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고밀도 녹지 확보, 도시 재생과 더불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이 각광 받고 있다. 또한 고밀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12).

한국교통연구원(2021)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40만 명이며, 그 중 330만 명은 매일 자전거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는 1979년 도로 구조령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2008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자동차 중심 도시의 문제를 극복 및 완화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을 전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활성화를 거치면서 자전거 관련 시설투자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용되던 자전거는 현재 자연과 함께하는 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자전거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관련 산업 또한 활성화 되고 있다. 2021 체육백서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종목 중 자전거는 전체에서 일곱 번째(6.2%)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나타났으며,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동호회 조사에서 여섯 번째(9.1%)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또한, 시·군·구 생활체육회 및 시·군·구 종목별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현황에서 자전거 동호인 클럽 수는 1,744개이며, 회원 수는 66,756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가 1,300만을 돌파한 것으로 보아 현재도 계속 자전거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호인의 경기 참여 또한 활성화 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동호인 자전거 대회로는 대한자전거연맹(KCF)에서 주최/주관 하고 있는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가 있다. MCT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KCF에 동호인선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MCT는 상위리그인 S리그와 하위리그인 D리그로 구분된다. MCT는 카테고리 별 순위를 제공하여 참가 동호인의 동기부여, 자긍심 고취 등으로 국민 레저 및 건강 증진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MCT에 참가하려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들은 동호회 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동호인 스포츠는 스포츠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비슷한 관심사와 취미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활동이며, 동호인들의 스포츠 하위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 나타났다.

하위문화는 전체 문화의 가치와 규범과는 다르지만 완전히 반대되거나 전체 사회에서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며, 하위문화는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문화적 환경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한다(Crosset & Beal, 1997). David & Julia(1991)의 정의에 따르면 하위문화는 한 특정 문화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믿음, 가치, 규범의 어떤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문화와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는 하위문화 또는 부분문화이다.

Loy, Mcpherson, & Kanyon(1978)은 스포츠 하위문화를 직업 하위문화, 동호인 하위문화, 그리고 일탈 하위문화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자전거 스포츠 동호인 하위문화에 속하며,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마라톤 등의 여러 생활체육 종목들도 동호인 하위문화의 부류에 속한다. 스포츠에서 동호인 하위문화는 개인의 중심적

인 생활관습을 추구하며,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제공될 때 만들어 진다. 그 특징으로는 문화를 공유하는 하위집단은 전체 사회에서 지배적인 다른 집단들보다는 다소 다른 믿음, 가치, 사고, 행동 방식을 나타낸다(Crosset & Beal, 1997). 선행 연구들은 스포츠 하위문화가 전체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하위문화의 탐색은 전체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Luschen(1969)은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스포츠가 구조화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스포츠에서 형성된 동호인 하위문화의 탐색적 접근은 한 집단문화의 분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회내의 스포츠와 문화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학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국내 자전거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속에서 자전거문화가 새롭게 생성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문화, 특히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동호회 참가자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자전거 하위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MCT S리그 동호회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하위문화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자전거 하위문화로써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S리그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새로운 자전거 하위문화로써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S리그 동호회의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새로운 자전거 하위문화로써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S리그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자전거 MCT투어 S리그 동호회의 스포츠에 대한 공유된 문화를 가진 그룹의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자전거 MCT투어 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인 중 연구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7명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도적 표집 방법인 비대표적 표본 표집법을 채택하였으며,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행동을 연구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룹이나 개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참가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전문가 집단과 자전거 MCT투어 S리그 동호회를 주도하는 집단의 대표와 회의를 거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고 기준안에 적합한 참가자를 추천 받아서 접근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자전거 MCT투어 S리그 참여 자격이 있으며, 자전거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가라 인식하고 있는 참가자들로 구성하였으며, 참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가명)	성별	나이	직업	동호회 직책	동호회 활동기간
김영은(#1)	남	47	자영업	회원	11년
이진석(#2)	남	43	자영업	회장	9년

한영석(#3)	남	39	프리랜서	팀장	9년
최재근(#4)	남	51	생산직	회원	17년
박형택(#5)	남	47	자영업	회장	8년
오은수(#6)	남	40	회사원	회원	10년
임진수(#7)	남	43	회사원	회장	11년

2. 자료수집

자전거 MCT투어 S리그 참가자의 하위문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전거 MCT투어 S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7명의 연구대상 중 1명을 대상으로 예비면접을 진행한 후 본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자전거 MCT투어 S리그 참가자의 하위문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구조화 면담과 반구조화 면담을 혼용하여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이끌어 냈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참여자에 대해 공식적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의 전 과정을 스마트폰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면담 내용에 있어 우선 자전거 동호회 활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각 과정 속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준비한 면담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처리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녹음한 자료는 우선 글로 옮겨 문서화한 다음, 문서화된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단위화, 부호화, 주제화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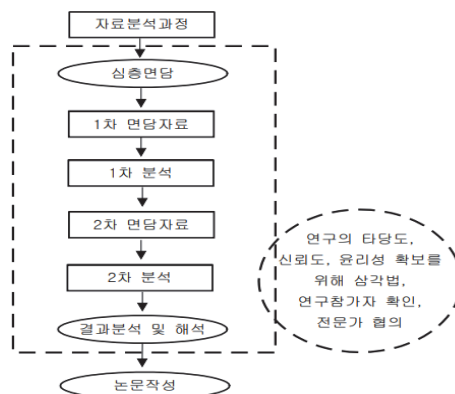


그림 1. 자료 분석 과정

4. 자료의 진실성 검증

자료 수집, 분석 및 결과 도출 과정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삼각검증법, 참여자 확인, 자전거 전문가 및 스포츠 사회학 전문가로 구성된 동료 검토를 통해 연구자가 오류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을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또한 참가자의 신분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 하였다. 더불어 모든 자료는 거짓, 임의 수정, 생략 등이 없이 원시자료(raw data) 그대로 사용하였다. 참가자에게는 면담 중 언제든지 연구 참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 속도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

1) 속도에 따른 구별짓기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라 그룹이 구분되어 주행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일한 동호회 내에서도 개인의 속도에 맞는 그룹을 찾아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속도가 낮은 참가자들은 상위 그룹의 주행에 참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함께 주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1이 언급한 출발과 동시에 그룹에서 이탈해 따로 주행을 하게 되는 부담감과 다른 참여자들에게 민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등 그룹에서 이탈해서 혼자 주행을 해야 하는 부담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의 차이로 인해 주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각자의 속도에 맞는 그룹에서 활동하기 위해 각기 다른 주행 계획을 공지하고 있었다. MCT S리그 참가 동호인들은 높은 주행 강도를 통한 훈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호회 내에서도 별도의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어 교류하고 주행을 공지하고 있었다.

라이딩 공지는 공식 카페나 단체톡방에서 이루어지는데 레이스 위주로 타는 팀원들은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 레이스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그 운동에 나오다 보면 출발과 동시에 떨어져서 각자 타는 경우가 많다보니 항상 라이딩 공지를 띄울 때 강도라는 걸 정해서 각자 알아서 실력별로 나눠서 주행 합니다(연구참여자 #1).

주말에 번개가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실력에 따라서 만약에 따라 나가서 민폐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안타요. 사람들이 간혹 어디 번개에 참석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멤버가 엄청 세져요. 부담되잖아요. 개인적 사정이 생겼다 그래요. MCT팀원들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팀장이 주행 공지를 올려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는 하위 그룹의 동호인이 S리그 그룹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까지 함께 주행하려는 배려를 하지만, 중반부 이후로는 각자의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력이 하위 그룹의 동호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 하위 그룹의 구성원과 함께 달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존 S리그에서 주행하던 구성원과 새롭게 참여한 구성원이 서로 부담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각자의 실력에 맞는 그룹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별로 다수의 주행이 공지되지만 각 주행 그룹의 참석에 제한이 없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Bourdieu(1977)는 동호회 내에서도 실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지나친 분류로 인해 상대방에게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동호회 구성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동호회 문화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일반 팀원들이 MCT훈련 병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까지는 같이 가고 다 챙겨줄 수는 없지만 반환점을 돌고 복귀 시점에는 어차피 길을 다 알고 실력대로 와야 하는거라 그 사람을 챙겨줄 수는 없어요. 또 나오는 친구들도 다 훈련하러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마저 전부 다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복귀할 때는 그거죠. 살아남기. 이럴 때는 서로가 부담이예요. 잘타는 사람은 챙겨야 하고 못타는 사람은 따라오기 급급하고(연구참여자 #4).

2) 폐쇄성

동호회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고, 검증된 실력과 성품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를 형성하기 위해 특별한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권기남(2009)은 사회 자본이 특정 모임에 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참여자 #5는 실력과 인성의 검증을 거쳐 기존 회원 수를 줄였다고 하였다. 동호회의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원은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수원(2000)은 한 사람의 인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장기간에 걸쳐 접촉해야 알 수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가함으로써도 인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인원이 많을수록 다수의 분란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선별된 소수의 인원만이 활동 한다고 설명하였다. 여러 사람이 활동 하는 동호회 보다 MCT 참가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동호회에 가입 될 수 있는 현재 동호회의 구조는 많은 변화를 거치고 현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룹의 구분으로 인해 동호회 내의 회원들 간에 단절이 발생하고, 속도 차이와 주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는 회원 또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각 그룹의 능력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민경호, 김성수(2004)는 구성원들은 조직 내부의 지위, 역할, 규범들 속에서 이익의 분배, 권한의 강화, 혹은 정서적 불일치 등의 차원에서 인식의 편차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상이성이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시합 참가 위주로 타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 친분을 다지는 팀입니다. 회원이 80명 가까이
됐었는데 많이 정리 했어요. 회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라이딩에 참여해서 갈

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실력을 봐서 선발한
회원 5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연구참
여자 #5).

저희 팀은 딱 열다섯 명이 다예요. MCT
를 나가고 있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동호인 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을 수 없잖아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부딪히고 분란이 사람이 많을수록
더 생기겠죠. 우리 팀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진 MCT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만 모아
놓은 것도 팀에서 리빙딩을 계속 해오면서
이게 맞겠다 싶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
습니다(연구참여자 #6).

3) 차별적 멤버 선발

연구 참여자들은 MCT 리그의 참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동호회 내에서 실력을 기준으로 차별적인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개인의 실력이 팀과 조직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동료들 간에도 실력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민경현, 유성진, 최영래, 2018). 이러한 현상은 S리그 참가 인원 제한과 S리그의 잔류를 위해서는 동호회와 개인이 성적을 달성해야 하는 경쟁 집단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S리그 시합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많은 경우 동호회 내에서 자체적인 선발전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력의 차이가 S리그와 D리그의 멤버 선발의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S리그에 선발된 참가들은 동호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쟁을 통해 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대표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7은 선발에 있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실력이기에 노력한 사람은 S리그의 선수로 시합을 참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MCT 리그의 동호회 대표로 선발되어

나가는 것은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정은(2003)은 고가의 자동차는 경제 자본이 될 수 있는데, 더불어 그 차량을 소유하고 다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하는 상징 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상징 자본은 한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권위와 명예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의례와 전략을 포함한 매우 유동적인 자본의 형태이다.

S리그에 잔류하기 위해 팀이 성적을 내야 되니까 멤버 선발은 무조건 잘 타는 순입니다. 그냥 MCT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D리그로 그 사람들 끼리 따로 모여서 투어에 못 나가도 상관없고 부담 없이 즐기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에서 S리그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죠(연구참여자 #5).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저희 안에서 S리그를 원하는 사람 8명 중에서 선발전을 통한 6명만 대회를 뛰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가 운동한 만큼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한 사람은 나갈 수 있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7).

2. 동호회의 문화적 특성: 남성 중심의 속도문화

1) 남성 중심 문화

MCT동호회에는 여성 선수의 비율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6은 동호회 내에서 여성 선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이전 동호회에서 여성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는 남성만 가입할 수 있는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소수의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한 결과, 남성 중심의 동호회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태룡(2003)은

동호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회원을 선발하는 것이 조직 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호회 회원 간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선별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였다.

현재 인원은 MCT S리그가 7명 그리고 D리그가 7명인데 그 7명 T.O 안에서만 움직이고 여자는 그리고 또 별개로 한명 그렇게 1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14명에 여자 한 명. 여성 선수는 많이 없어서 한명만 활동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6).

남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이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팀을 만들기 전에 또 다른 팀이 있었는데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여왕별 모임이 생겨서 남성 회원들이 편 가르기가 되고 이간질도 있고 해서 애초에 그런 걸 차단하고자 남자 회원들만 받기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3).

MCT S리그 동호회에서는 속도 경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여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여성 회원이 S리그 시합을 경험하고 빠른 속도에 살아남기 어려워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회원 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은 남성 회원들 또한 시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활동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박영옥(2002)은 경쟁이 주로 남성 중심적인 스포츠에서 지나치게 강조되며, 남성들은 여성들과는 다르게 스포츠와 야외활동을 통해 남성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결연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한다. 조형(1992)에 따르면 남성성은 쉽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특정한 남성적인 특성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남성적인 특성들은 정신적으로 강하며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성의 대표적인 특징들로 언급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 영입 과정에서 나이 많은 형님들도 나이 먹고 그런 시합 나가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빠지시더라고 그냥 옆에서 응원해 준다면서 그런 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성 팀원 한 명 있었는데 같이 시합을 몇 번 뛰해보니까 MCT S리그 자체가 빠른 스피드로 주행하는 시합이라 살아남기 힘들어서 포기를 하더라구요(연구 참여자 #4).

2) 속도에 따른 서열문화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 속도에 따른 서열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박창범과 임수원(2005)은 운동 기능의 우수성이 동호회 내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참여자 #1, #2는 상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동호회 운영에서 결정권과 발언권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자전거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발언권이 결정권도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화는 당연하게 생각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호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잘 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MCT S리그의 동호회에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높은 서열을 가지고 높은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유는 서열과 자존심 때문이라고도 언급하고 있다. 배정섭, 서광봉, 이민석(2018)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개인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MCT S리그 동호회에서 높은 서열을 쟁취하기 위해 자전거를 더 열심히 타게 되어 동호회 회원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전거를 잘 타면 그 사람의 발언권에 힘이 실리겠죠. 하다못해 회식 또는 운동 코스를 잡는 일 아니면 단체 팀 복을 맞추는 등 가 그랬을 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해요(연구참여자 #1).

사람이라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내가 자전거 잘 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운영적 부분에서도 실력이 좀 좋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호회다 보니까 내가 자전거도 잘 못 타고 활동도 많이 안 하고 자전거 탄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면 그렇겠죠. 할 말이 별로 없겠죠. 활동 많이 하고 내가 자전거 잘 타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연구참여자 #2).

3) 안전중심의 엄격한 훈련문화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는 안전중심의 훈련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폐쇄적인 동호회 운영과 엄격한 훈련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동호회 내 자전거 주행에 있어서 안전에 대하여 강조하며, 엄격한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동호회 훈련은 도로에서 높은 속도로 밀집된 주행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누군가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여 주행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정광진(2013)은 도전과 모험을 요구하는 스포츠일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안전이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되어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MCT S리그에서 검증된 동호회끼리 주행하는 폐쇄적인 동호회 주행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자전거 타기 전에는 다들 편안하게 웃으면서 잘 지내다가 안장에 앉으면 많이 엄격한 편이죠. 위협하게 타거나 장난삼아서 타면 그때그때 바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크게 다치니까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부팀장이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1).

3.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갈등

1) 위광을 위한 암묵적 합의

MCT S리그에서의 경쟁력과 우승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목적이 동일한 동호회들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S리그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동호회들 간의 합병이 이루어 졌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적하게 되는 동호회에서의 특례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이적을 했다고 설명한다. 상위의 성적을 유지해야만 잔류할 수 있는 MCT S리그 내에서 동호회 간 선수들의 이적과 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장승현, 서미아(2010)는 경쟁에서의 우승을 주요 목표로 삼는 운동 동호회 회원들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모든 활동을 그 목표에 집중하며, 회원들의 몰입과 열정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태룡, 박보현, 한승백, 탁민혁(2013)은 스포츠의 특성 중 경쟁성이란 집단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개인 및 집단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동호회 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서 선수의 영입에 있어서도 집단 간 경쟁과 특례를 통한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작년에 한 10명 정도 넘게 들어온 게 다른 팀 과 합병을 해서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됐어요. 다른 팀에 활동하는 인원이 6명 정도 있고 저희 팀에서 기존 활동하던 팀원이 4명이 있고 타 지역 팀에서도 3명 정도가 합류했어요.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됐죠. 처음 고민이 선수층이 S리그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얇다. 그래서 서로 팀들 간의 합병 이야기가 나왔고 합치게 됐죠(연구참여자 #3).

서울 팀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원래 경상권에 있는 팀에 창단 멤버였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담았었는데 중간에 한 번씩 팀을 옮겨 다녔어요. 이 팀에 머물러 있으니까 팀의 운동 방식이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 쪽 팀이 인프라나 정보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 되고 더 전략화 돼 가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고 싶어서 서울 팀으로 가는 거죠(연구참여자 #6).

2) 승리를 향한 역할갈등

MCT S리그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경기에 참가 하게 되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팀플레이가 무너지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MCT S리그 시험 경험이 많고 여러 MCT동호회로 이적을 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6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회원이 내부의 적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 시상을 하는 자전거 종목의 특성상 동호회의 단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동호회를 이적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욕심이 있는 거죠. 팀원이 시험 중에 도망을 나가 있으면 나는 빨리 가면 안 되지만, 2등 3등에 욕심이 나서 나도 도망가고 싶은 거죠 ... 중략 ... 내부의 적이죠. 여기서 우리 팀원이 나갔을 때는 뒤에서 그룹의 속도를 줄여 주는 게 좋은데 개인적인 등수 욕심이 있다 보니 참지를 못하는 거죠(연구참여자 #6).

한편,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동호회와 회원 영광을 개인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식하는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번트리더십을 처음 언급한 Greenleaf(1970)는 타인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며, 종업원, 고객 및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쓰는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김용주, 2013 재인용). Greenleaf(1970)에 따르면 서번트리더십은 조직원들 간에 공감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동호회를 통한 스포츠 활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구와 관련된 신체 활동이다. 이를 통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운동하면서 인간의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욕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Coakley(2011).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팀원을 위해 희생해줄 수 있는 생각은 있죠. 충분히 저희 팀에서 누군가가 입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팀의 자랑거리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다 이해 해주고 잘하면 팀의 영광이죠. 팀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영광이 자기 혼자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거기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영광이고 팀의 영광이라고는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7).

3) 자아실현의 장

MCT S리그의 선수들은 개인적인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들로부터의 인정을 얻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 #4는 S리그에서 상위권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생업 외에 일과의 모든 중심이 자전거 훈련에 맞춰져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이런 생활이 가끔씩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자전거 라이딩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스포츠의 종목 특성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스포츠를 소비하는 것이 단순히 스포츠 자체의 유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위세, 권위와 같은 이미지와 관련된 상징적 요소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장호중, 김지은, 김정목, 정철규, 박순문, 2003).

김진성, 이창섭, 남상우(2009)의 연구에서는 동호인들에게 자신의 실력이 인정되어 자부심을 느끼는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수영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평가받는 실력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Maslow의 욕구 이론에서 존경의 욕구에 해당하는 4단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전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다. Maslow(1954)는 5단계의 욕구 중 자아실현의 욕구를 "인간이 자기 완성에 대한 욕망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자아실현의 단계를 의미하며, 현재 소수의 사람들만 자아실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상호(2002)는 스포츠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승리를 위해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경쟁과 상대와의 대립을 통해 개인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스포츠는 인간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좀 부지런 해야죠. 근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운동을 한다든가 일과가 끝나고 사적인

자리를 안 해야 되겠죠. 정해진 모임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노는 일은 없고 계획을 짜놓고 운동 강도를 정해놓고 해요. 스스로 생각해도 현타가 올 때가 있지만 그게 자존심이기도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자전거에 꽂혀 있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은 이상 요즘 동호인들도 잘 타기 때문에 그걸 지켜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할 줄 알고 잘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또 어디 가면 또 자전거 타야만 그 안에서는 먹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미있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1).

체계적인 훈련을 잡아놓고 스케줄대로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 중인데 잘 안 돼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매일 매일 타야 된다고 봐야죠. 자전거가 삶의 80% 이상이 아니겠나 싶어요. ... 중략 ... 활력소라고 봐요 사람들이고 자전거로 많이 알게 됐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앞으로 부상 없이 좋은 인연을 계속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항상 자전거를 타면서 내 건강을 또 챙길 수가 있으니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4).

IV. 결론

본 연구는 MCT S리그 동호회의 사례를 통해 하위문화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로는 MCT S리그에 참여하고 연구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는 총 7명의 동호인을 선정하였다. 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이 동호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동호회 내부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 관찰, 보조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 작업을 통해 텍스트 자료로 변환하였으며, 의미의 범주화와 개념화 분석 과정을 통해

MCT S리그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CT S리그 동호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속도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었다. 동일한 자전거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라 그룹이 구분되어 주행하는 "구별짓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호회 내의 회원들 사이에 단절이 발생하고, 속도 차이로 인해 주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는 회원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각 그룹의 실력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호회 내에서도 MCT S리그 그룹과 일반 그룹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고 있었다. 동호회 내에서 MCT S리그 그룹은 별도의 소통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행 공지도 해당 단톡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Bourdieu의 관점에서 MCT S리그 선수들은 S리그라는 문화 자본을 통해 자신들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소유한 자본을 유리한 방식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T S리그 동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합 중심의 검증된 실력과 우수한 인성을 갖춘 선별된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MCT S리그 동호회에 소속되기 위한 기준은 주로 실력을 기반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구별짓기 현상이 발생하였다. 외부 동호회와의 주행을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회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호회 내부는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며,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동호회와의 주행을 피하게 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MCT S리그에 속한 동호회는 리그에서 잔류하기 위해 분기별 성적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동호회 내에서 S리그 참가 멤버의 선발은 실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선수들 간의 경쟁과 선의에 의한 선택이 진행되고 있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동호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경쟁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MCT S리그 동호회는 남성 중심의 속도 문화를 보이고 있었다. 여성 회원들은 MCT S리그의 속도에 부담을 느끼며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탈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MCT S리그 동호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회에서의 우승이 목표인 동호회의 특징으로 인해 빠른 속도의 경기, 동호회 주행, 위험하고 격렬한 MCT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담은 여성 회원들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은 남성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소수의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과별과 갈등이 발생하는 다수의 사례로 인해 남성만 가입할 수 있는 자전거 동호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도 속도에 따른 서열이 형성되고 있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회원들이 경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동호회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실력을 가진 사람은 속도, 경험, 지식 등을 통해 전문적인 권력을 얻어 동호회의 운영에 결정권과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결과, 참여자들은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유가 서열과 자존심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며, 이는 속도에 따라 형성된 서열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동호회 내에서의 갈등 상황과 개인의 운동 중독 성향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MCT S리그 동호회 내에서는 안전을 중시하는 훈련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폐쇄적인 동호회 운영과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되었다. 동호회 내 자전거 주행은 항상 안전을 강조하고 서로 간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진행된다. 도로에서 고속으로 밀집된 주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전체 그룹이 위협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안전이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되어 엄격한 훈련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MCT 리그 내에서는 D리그와 S리그 간에 기량 차이가 존재하며, D리그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MCT S리그에서는 검증된 동일한 S리그 동호회끼리만 주행하는 폐쇄적인 동호회 주행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동호회 선수들의 자전거 가격은 전반적으로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 MCT 대회에서 사고로 인해 자전거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MCT S리그에 참가하는 상위권의 선수들은 최고가의 자전거보다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그의 하위권 선수들은 좋은 장비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으며, 장비로 인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상위권과 하위권 참가자들 간에 자전거의 의미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MCT S리그 동호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으로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갈등이 나타났다. MCT S리그에서는 경쟁력과 우승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들이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호회의 경쟁력을 위해 회원들의 활동이 더욱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몰입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성적 향상을 목표로 다른 동호회보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집단 간 경쟁과 특례적인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이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MCT S리그에서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경기에 참가하지만, 팀플레이를 통해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동호회와 회원 간에 추구하는 방향성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다. MCT S리그에

서는 회원들과 함께 경기를 진행해야함으로 대인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것은 리그에서의 큰 경쟁력을 가져온다. 동호회 활동은 참가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MCT S리그 동호회 회원들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동호회와 회원의 영광을 개인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식하는 서번트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회원들 간에 높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동호회와 회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협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욕심보다 조직의 승리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호회 회원들은 고차원적인 자아실현의 욕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다.

MCT S리그의 선수들은 개인적인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들로부터의 인정을 얻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동호회 회원들은 자신의 실력이 동호회 내에서 인정받아 자부심을 느끼고, 타인들로부터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었다.

V. 제언

본 연구에서는 MCT S리그 동호회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 동호회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위치한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하위문화, 동호회 내부의 MCT 동호인과 일반 동호인 간의 하위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자전거동호회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비교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남성 동호인 위주로 하위문

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여성 동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자전거 여성 동호인의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자전거동호회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전거 MCT S리그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MCT D리그 동호인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두 리그 동호인 간 하위문화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자전거동호회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구창모(2008). 테니스동호인의 하위문화적 특성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6), 113-125.
- 강명구(1995).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 강성진, 이혁기, 임수원(2010). 테니스동호인 랭킹 문화의 특성과 기능. *한국체육학회지*, 49(2), 71-81.
- 강효민, 박기동(2008).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4), 845-863.
- 권기남(2009). 상류계급 골프문화의 구별짓기와 계급재생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권기남, 권순용(2013). 축구심판들의 구별짓기와 전복전략.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6(2), 65-84.
- 권기남, 이정래, 최정웅(2014). 엘리트스포츠 여성 지도자의 아비투스과 전복전략.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3), 115-132.
- 권김현영, 나영정, 루인, 엄기호, 정희진, 한채운(2001). *남성성과 젠더*. 서울: 자음과 모음.

- 권현수(2015). 스포츠클럽 구성원으로서 융화되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영갑(1996). 대중매체 수용태도와 스포츠 참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용주(2013). 보육교사가 인식한 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성, 이창섭, 남상우(2009). 심리적 포부와 사회적 역할: 마스터즈 수영 참가자의 지속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8(1), 93-101.
- 김정은(2003). 대중문화 읽기와 비평적 글쓰기. 서울: 민미디어.
- 민경호, 김성수(2004). 집단갈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43, 575-598.
- 민진(1986).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자기성취.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민경현, 유성진, 최영래(2018). 팔씨름 참여자들의 하위문화적 특성 탐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397-408.
- 박상용, 오현택, 김영구(2011) 사회인 야구동호인의 하위 문화적 특성: 야구용품 구입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0(1), 205~218.
- 박상현, 권순용(2010).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9(4), 57~78.
- 박영옥(2002). 성 편향적 스포츠와 여성주의적 대안. 사상 여름호, 53, 77-97.
- 박창범(2006). 여성 인라인스케이팅 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4), 189-202.
- 박창범, 임수원(2005). 인라인 스케이팅 동호인 사회인결말에서의 자원교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3), 429-443.
- 배정섭, 서광봉, 이민석(2018). 사회인야구동호인들의 팀 이탈 및 재참여 요인에 대한 귀납적 범주분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2(4), 1-11.
- 신석민, 최원석(2017). 배드민턴 동호인 승급제도의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학회지, 15(2), 589-598.
- 석승혜(1999). 저항적 하위문화에 대한 일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강영, 한광령(2010).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의미형성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4), 107-128.
- 임송국(2016). 여성 생활체육 농구동호회 참여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체형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새미(2016). 생활체육동호회의 진입장벽 청년세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 397-406.
- 임수원(1999a). 길거리 농구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1), 41-56.
- 임수원(1999b). 스포츠의 하위문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세미나(1) 자료집. 53-71.
- 임수원(2000). 골프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2), 207-229.
- 안병순(2003). 군 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 학대학원.
- 이철원, & 조상은. (2001). 청소년의 여가만족과 제약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1, 179-194.
- 윤선아(2010). 통합 상황에서의 소집단 공감활동이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공감능력, 정서 표현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호중, 김지은, 김정묵, 정철규, 박순문(2003). 스포

- 츠 소비자의 가치관과 스포츠 선호종목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5), 459-474.
- 정광진(2013). 패러글라이딩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장비 점검활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전용배, 김영갑(2009). 녹색성장과 스포츠.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1-13.
- 조형(1992). *지배문화, 남성문화*. 서울: 청하.
- 장승현, 서미아(2010). 크루저요트 동호인 하위문화의 수직적/수평적 구성원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2), 117-134.
- 최상호(2002).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통연구원(2012). *자전거안전정책의 계량적 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2021). *친환경 개인교통 정책지원 사업*. 한국교통연구원.
- 행정안전부(2010).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행정안전부.
- 현택수, 정선기, 이상호, 홍성민(2002). *문화와 권력 :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
- 한태룡(2003). 테니스 동호인의 하위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태룡, 박보현, 한승백, 탁민혁(2013). *스포츠 사회학*. 서울: 레인보우북스.
- Amason, A. C., & Sapienza, H. J.(1997). The effects of top management team size and interaction norms on cognitive and affective conflict. *Journal of Management*, 23, 495-516.
- Bourdieu, P.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translated by R Nice. London and Beverly Hills: Sage.
- Bourdieu, P. (198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The Economic World Reverse Poetics*, 12.
- Cameron, K. S., & Spreitzer, G. M. (Ed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Oxford University Press.
- Coakley, J.(2011). *Sport in Society: Issues & Controversies* (No. Ed. 10). New York: McGraw-Hill Inc.
- Croesset, T., & Beal, B. (1997). The use of "subculture" and "subworld" in ethnographic works on sport: A discussion of definitional distinctions. *Sociology of Sport Journal*, 14, 73-85.
- David, J., & Julia (1991). *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Harper Collins publishers.
- Birrel (Eds.), *Sports. in the sociocultural Press*, 3rd ed. (pp.565-587). Dubuque, IA: Wm. C. Brown.
- Donnelly, P.(1993). *Subcultures in sport: Resilience and transformation. Sport in Social Developmen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ublishers.
- Greenleaf, R. K. (1970). *The Servantas Leader*. Indianapolis: The RobertK. Greenleaf Center.
- Guba,E.G.,&Lincoln,Y.S.(1989). *Fourth generatione valuation*. Newbury Park,CA :Sage.
- Loy, J. W., Mcpherson, B. D., & Kenyon, G. (1978). *Sport and social System*.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Luschen, G. (1969). The Interdependence of Sports and Culture. *International Review on the Sports Sociology*, 2, 27-41.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CA:Sage.
- Scanlan, T. K., Varpenter, P. J., Lobelm, M., & Simonsm, J. P. (1993). Sources of Enjoyment for Youth Sport Athletes.

- Pediatric Exercise Science*, 5, 275–285.
- Steele, P. D., & Zurcher, L. (1973). Leisure sports as ephemeral roles.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6, 345–356.
- Wolcott, H.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 Wolfgang, M., & Ferracuti, F. (1967). *The subculture of violence*. London: Tavistock.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96.
- McIntyre, N. (1992). Involvement in risk recreation: A comparison of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engag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64–71.
- Nixon, H. I. (1992).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Influences on Athletes to Play with Pain and Injures.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 16, 127–135.